

언어의 소외와 진실

언어의 인플레이 속에서 대화의 빈곤을 개탄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설적인 사실이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나서 과연 오늘 대화다운 대화를 어느만큼이나 했는가고 자문하면 별로 보람있는 대화를 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알맹이 없는 말하자면 진실성 없는 이야기를 아무리 긴 시간 주고 받아도 결국 경험의 공감대 없는 낯두리로 끝나고 만다. 제일 두려운 일은 소외된 언어로 대화를 시도하는 일이다. 사람이 말에 얽매어서 언어의 노예가 되는 사태가 바로 소외된 인간 생활의 실상일 것이다. 그리고 보면 캐치프레이즈로 타락되어지고 있다.

아마도 방언 종교가 계속적으로 번성하는 이유도 우리 일상어의 소외 현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쓰는 말, 예배에서 표현되는 말이 소외된 언어로 가득 차있게 될 때, 인간은 방언 종교의 마력에 쏠리게 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인간 소외의 현상은 언어 소외라는 현상에서 그 징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참 오래간만이네!”

“참 그래 재미가 어때?”

“그저 그렇지”

“사업이 잘돼나”

“그저 그래!”

길에서 주고 받는 대화의 한 토막이다. 우리는 이러한 소외된 언

어 교환을 보게 된다.

“야 이거 오래간만이군, 훌쩍해졌네”

“말 말게, 또 짜당이야”

“그럼 또 뱀잡았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지마는 이 은어로 하는 대화 속에는 생기가 있고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낀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진실치 못한 언어, 즉 소외된 언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의도와 행동 사이에 있는 깊은 간격을 메꾸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생활에서 빚어지는 현대인의 고질일런지 모른다. 폴·레만이 라는 신학자가 쓴 책에서 재미있는 예화를 읽었다. 한 사람이 자동차를 팔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세 가지 행동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그 자동차의 모든 사실을 알려 주는 일, 둘째는 이와 반대로 자동차에 관한 말을 일체 하지 않는 일, 그래서 그 자동차의 결합을 사는 사람이 스스로 찾게 하는 일, 세째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동차를 살 사람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일, 이상 세 가지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적당한 태도라고 할까? 세 가지가 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범주 속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까?, 자동차에 대한 진상을 내가 아는데로 다 알려 주어도 내가 모르는 점

이 남아 있을런지 모른다. 여기에 나의 의도하는 바와 진상과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폴·레만은 이것이 현대 윤리학에 있어서 풀지 못할 난문제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을 시도하려는 학문의 오만일런지 모른다. 그것은 영원히 메꾸어질 수 없는 갭이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하면 본책과의 말에 오히려 박력이 있다. 그는 소외된 언어의 구원은 오직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옳은 언어로써 기술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말은 살아 움직이는 말이요, 생명 자체와 마찬가지로 활기있고 창조를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실은 거짓의 반대어이기에 앞서 정밀한 기술을 의미한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기술하는데 먼저 언어의 빈곤 보다도 소외된 언어로써 문제를 마구 처리해 버리려고 하는 조급한 태도가 엿보인다. 신조 문제, 세계 교회 운동, 그리고 외국 신학 사상의 소개 등 단번에 밀어닥치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미처 엄밀한 기술을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처리해 버리려는 데서 우리는 신학적 언어의 빈곤과 교권주의자들의 소외된 언어 처리에 한 가닥의 불안을 느낀다. 소외된 언어에서 언어의 생명을 되찾는 일이 참된 권위를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될 것이다.